

초록의 도심 속 정원, 새 핫플로 떠올라



국제화훼원예전 및 중국 - 프랑스 문화의 달 장춘 '청이방'서 개최

장춘시 남관구 천공로와 림하둥거리 교차점에 위치한 도심 속 정원 '청이방(靑怡坊)'이 최근 핫플레이스(打卡地)로 떠오르고 있다. 화훼원예전, 식물창고, 사진전에 복합상업거리가 어우러진 현대화 레저 정원에 근일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사진을 찍고 휴식을 취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.

청이방 · 원예

이곳에는 4개 대륙의 100여종 희귀식물과 꽃들이 집합, 동서방의 이색적인 정원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. 예술가들은 이곳에서 원예로 대화를 나누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.



청이방 · 식물창고

5,000여평방미터 면적의 식물창고에는 꽃, 녹색식물, 화분 등이 구전해 고객들의 원스톱 구매를 충족시킬 수 있다. 청이방 식물창고에 들어서면 마치 싱그러운 정취가 가득한 꽃바다, 식물바다를 거니는 듯하다.



청이방 · 중국 - 프랑스 영상교류전



'자연, 사회, 공생'을 주제로 한 중국 - 프랑스 영상교류전은 '중국과 프랑스 문화의 달' 활동의 하나로 두 지역간 시간, 문화 차이를 연결해주고 있다. '운량'(云琅) 현대미술관에는 국내외 유명한 사진작가의 작품이 많이 전시되어있다. 그중 연변문학예술계연합회 부주석 차광범의 작품은 관람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. 그의 사진 작품은 사람과 지경(地景)을 단순하게 복원한 것이 아닌 감정과 공간을 담고 있다.



청이방 · 운량예술상업거리



여유로운 오후차 한잔, 친구와 함께 인증샷 찰각... 운량예술상업거리에서는 전통 쇼핑을 하며 맛나는 음식을 맛볼 수 있을뿐더러 커피, 예술 향기로 가득한 문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.

/ 손맹번 류향휘 기자